

# 옷의 힘

—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



10 옷의 힘을, 난민과 피난민에게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 옷의 힘

# 10

표지 사진 : 가미오카 신스케

## CONTENTS

- 04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
- 06 케냐의 난민 캠프에서 만난 젊은이의 힘
- 10 카쿠마 난민 캠프의 생활, 교육, 직업훈련
- 12 라르만 씨가 일본에 온 이유
- 14 「300만 벌 필요합니다」 캠페인 보고 및 감사인사
- 15 FROM FAST RETAILING

## 옷의 힘을, 난민과 피난민에게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

유니클로는 옷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옷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불필요해진 옷을 매장에서 회수하여 난민과 피난민에게 전달하는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정으로 조국에서 쫓겨나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로 도망쳐 온 사람들. 하지만 빈곤, 문화와 언어의 차이 등으로 도망쳐 온 나라에서도 난민들을 둘러싼 환경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가슴에 꿈을 품고 열심히 살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입니다. 옷의 리사이클을 통하여 난민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옷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함께,  
옷의 힘을 난민과 피난민에게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

유니클로에서는 고객에게 불필요해진 옷을 매장에서 회수하여 UNHCR(유엔난민기구)과 협동하여 난민과 피난민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한 장의 옷을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벗은 어린이가 옷 한 장을 걸치는 것만으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 유니클로의 옷을 산다

**2** 소중하게 오래 입는다

**난민과 피난민에게**

운송 중에 분실되거나 팔리는 일이 없도록 유니클로의 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배부하는 등 고객으로부터 기부받은 옷이 난민과 피난민에게 전달되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또한, 현지의 섬유산업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매장에 기부한다**

유니클로의 매장에서는 불필요해진 옷을 1년 내내 회수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신 옷은 매장의 회수 상자에 넣어주시거나 직원에서 전달하여 주십시오.

※회수 상자를 설치하지 않은 매장도 있습니다

**3**

**「아직 입을 수 있는 옷과 더는 입을 수 없는 옷」을 분류한다**

**계절, 남녀, 치수 등에 따라 분류한다**

난민 캠프 등에서 옷을 배부하기 쉽게 현지로 발송하기 전에 옷의 종류와 치수 등의 기준에 따라 12종류로 분류, 정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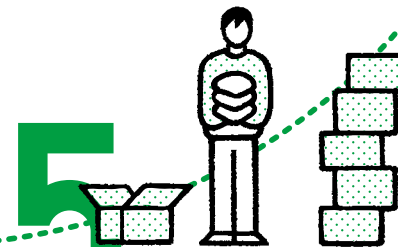
[입을 수 없는 옷]



**연료와 섬유 등으로 리사이클 (약 10%)**

더는 입을 수 없는 옷은 연료화하거나 공장 등에서 기계의 기름걸레로 사용되는 「기계 걸레」로 재탄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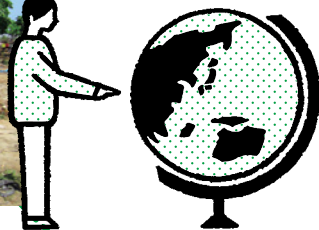
[입을 수 있는 옷]



**6**

**기부할 곳, 기부할 옷을 결정한다**

UNHCR을 통하여 기부할 곳의 우선순위와 현지의 수요를 파악합니다. 기후는 물론 문화와 종교도 고려하여 옷을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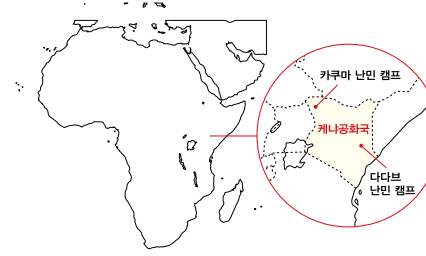


**5**



# 케냐의 난민 캠프에서 만난 젊은이의 힘

과거 최대 규모라고 하는 소말리아의 인도적 위기, 가뭄도 겹쳐서 전인구의 3분의 1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어 「최악의 인도적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인접한 소말리아에서 온 난민도 많은 케냐의 난민 캠프에 이번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의 하나로 100만 벌의 의류 지원을 하였습니다.



## 케냐공화국

케냐에는 카쿠마 난민 캠프와 다다브 난민 캠프가 있으며 수도인 나이로비에도 많은 난민이 생활하고 있다. 케냐에 피난하고 있는 난민 수는 63만 명을 넘고 있으며 그 수는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아프리카대륙의 북서부에 있는 카쿠마 난민캠프. 그 실정은 매우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케냐에서도 특히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며 기후적으로도 혹독한 지역이고 물 사정도 나쁩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분쟁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 식량, 텐트 등에 대한 최저한의 배급은 있지만, 의류 지원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뭄과 모래 돌풍으로 몸이 모래먼지투성이가 되지만 물 사정이 나빠서 옷을 세탁할

여유도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옷은 원래 부족한 데다가 배부되는 수도 적은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은 옷을 입지 않고 지내거나 어른이 입던 낡은 티셔츠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감염과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과거 최대인 100만 벌의 의류 지원을 하였는데 한사람에게 상·하의 2벌씩 배부한다고해도 25만 명에게 밖에 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케냐 국내의 난민 수는 63만 명에 이릅니다. 100만 벌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케냐에 대한 의류

지원을 계속해서 실시해 갈 예정입니다.

첫날 방문했던 여자 기숙학교에서의 일. 이미 배부된 유니클로의 옷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특사인 안젤리나 졸리의 기부로 세워진 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녀들은 난민 중에서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편으로, 평소에는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옷을 입고 있는 그녀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자 기쁜 듯이 들떠서 차례차례 자세를 취해 주었습니다.

새빨간 외투와 단출한 파카를 세련되게 입고, 날씬하고 긴 다리에 호리호리한 청바지를 맵시 있게 입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청바지의 치수가 조금 작지만 멋있어 보인다고 입고 있는 소녀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 입느냐?」고 물었더니 「꾸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휴일에 입을 걸 즐겨요,」라며 웃는 얼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몸치장과 옷에 매우 흥미가 있는 그녀들이지만 그녀들이 가진 것은 일용품과 잡화를 포함하여 옷 상자 하나 정도. 옷은 서너벌에 지나지 않습니

다. 낮에도, 밤에 잘 때도 교복을 입고 있다는 아이도 있는 가운데 유니클로에서 받은 옷 선물에 대한 기쁨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방과 후와 휴일에 입을 유니클로의 옷은 이미 그녀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장래의 꿈을 물어보았습니다. 건네준 도화지에 쓴 것은 「저널리스트,」 「의사,」 「선생님,」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녀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참혹한 캠프 생활 속에서도 각자의 꿈을 가슴에 안고 매일 열

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한 옷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한 발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고 위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이번에 케냐에서 만난 여학생들처럼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는 이 활동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카메라를 향해 웃음 띤 얼굴을 보이며 자세를 취하는 카쿠마 난민 캠프의 젊은이들. 그들의 이제까지의 그리고 이제부터의 꿈에 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 STORY.01

오거스틴 씨 남수단 출신 19세

### 언젠가 모국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금은 난민 캠프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물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고 이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결코 공부할 환경이 갖추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마다 다양한 사정으로 학교에 올 수 없게 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저 자신을 포함하여, 교사로서 커리

클을 짜는 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들도 흥미가 떨어져 가고 그것이 성적과 출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제 자신의 공부도 좀처럼 진척되지 않습니다. 통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 보

람이 있어 작년 케냐의 통일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 좋게 장학금을 받는 프로그램에도 합격하여 캐나다의 대학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장래는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여 열어가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캐나다에서 물리를 배우고 언젠가 모국에 돌아와서 부족한 전력상황 등을 개선하고 조국에 공헌하는 것이 꿈입니다.



## STORY.02

### 사디아 씨 에티오피아 출신 23세 괴로운 경험도 삶의 힘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도망쳐 와서 이 캠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둘이서 처음에는 영어도 전혀 하지 못해서 고생하였지만, 지금은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에서 일하며 적으나마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기 민족의 리더로서 일하며 캠프 생활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영상을 이용한 개발활동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뤄 자립하는 여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응원해 가고 싶습니다.

## STORY.03

### 키브롱 씨 에리트레아 출신 12세 꿈은 아버지와 같은 엔지니어

가족을 잃은 저를 양자로 맞아주신 양아버지와 가족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 준 가족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아버지와 같은 전기기사, 엔지니어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잇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산수 공부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영어를 활용하여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에리트레아에 돌아가서 고향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약 10만 명이 생활하는 케냐의 난민 캠프 카쿠마 난민 캠프의 생활, 교육, 직업훈련



UNHCR  
케냐 사무소  
하코자키 리카 씨

케냐의 카쿠마 난민 캠프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도망쳐 온, 문화도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쿠마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UNHCR(유엔난민기구) 케냐 사무소의 하코자키 리카 씨에게 물었습니다.

##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15개국 출신의 사람들이 공존 다국적·다민족의 난민 캠프

카쿠마 난민 캠프의 특징 중 하나는 15개나 되는 나라로부터 도망온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나라와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같은 캠프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 종교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카쿠마 난민 캠프가 있는 곳은 건기에는 모래 돌풍이, 우기에는 홍수가 발생하는 등 케냐 안에서도 자연환경이 혹독한 지역. 적절한 위생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도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늦어져 있어 자연자원도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UNHCR에서는 병원을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녹화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카쿠마 난민 캠프의 출신국별 비율

출신국	인구비율
소말리아 공화국	47.6%
남수단 공화국	31.7%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6.0%
콩고 공화국	5.6%
수단 공화국	4.6%
부룬디 공화국	3.1%
기타 9개국 합계	1.4%
합계 15개국	약 10만 명

2012년 9월 현재(UNHCR 조사)



## 장래의 꿈과 희망을 향한 첫걸음을 구축하는 「교육」



난민들에게 장래에 대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눈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 수단, 자신의 장래를 스스로 열어가는 힘이 됩니다.

캠프 안에는 학교가 있고 초등교육까지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사노동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 등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호자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개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쿠마 난민 캠프에는 여자 기숙학교가 있어 소녀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진 a는 점심시간의 모습. 영양가 높은 수프가 1컵 배급됩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몸치장은 그녀들의 즐거움 중 하나. 옷 상자(사진 b) 안에는 화장품과 몇 벌의 옷이 소중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직업훈련소」



캠프 안에서는 난민들이 조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발, 봉제, 목공 등 몇 개의 종류가 있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훈련 희망자 수에 비하면 난민 캠프에 준비된 훈련 장소와 기회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진 a는 봉제를 배우고 있는 모습. 학교의 교복을 수주하여 생산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진 b는 땅콩버터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땅콩을 껍질째 사용. 기름 등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고 100% 땅콩으로 버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된 땅콩버터는 난민 캠프 안의 클리닉에서 유아를 위한 영양보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난민」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라므만 씨가 일본에 온 이유

난민 중에는 안심하고 살 곳을 찾아서 일본에 이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유니클로에서 일하고 있는 라므만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조국 미얀마에서 홀로 일본에 온 라므만 씨. 라므만 씨가 「난민」이 된 이유는 조국을 떠나는 것 이외에 박해의 위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정권에 의한 민주화 운동 탄압이 횡행하고 있던 90년대의 미얀마. 「부탁받아 말아두고 있던 자료가 민주화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린이었던 저도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별을 아쉬워할 여유도 없이 출국.

안심하고 살 곳을 찾아 당도한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문화도 몰랐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가도 비싼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의 지주가 되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라므만 씨는 미얀마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친족(族) 출신. 「부모님의 일 때문에 친주(州)에서 도시지역인 양곤으로 이사했을 때

언어의 차이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주위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함도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한 라므만 씨. 4년 걸려 일본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후 「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1」 선발에 두 번째 도전 만에 합격. 2010년부터 간사이가쿠인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민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사이 좋은 일본인 친구가 생겼을 즈음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난민」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 「친구로부터 「난민은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

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난민」이라고 해도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자립을 위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 또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난민들의 모습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격려와 용기를 얻는 일도 있습니다.

현재 라므만 씨는 대학 부근의 유니클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노력하는 모습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로부터도 신뢰받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때도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난민 인턴십(P13 참조)을 계기로 일하기 시작한 지 약 1년. 라므만 씨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미얀마에도 유니클로가 진출하면 조국의 유니클로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므만 씨, 미얀마 친주(州) 출신. 1996년에 일본에 왔다. 현재 간사이가쿠인대학 3학년. 「난민 인턴십」을 거쳐 2011년 11월부터 유니클로 한큐니시노미야 가덴즈 점에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나라를 떠난 지 14년 만에 부모님과 재회. 현재는 부모님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다.

## Refugee Affairs

### 난민과 국내 피난민이란?

전쟁과 내전 혹은 종교, 인종, 정치적 의견의 차이에 의한 박해 등이 원인으로 타국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을 「난민」, 같은 이유로 자국의 다른 장소에 피난한 사람들을 「국내 피난민」이라고 한다.

### 난민 캠프

식량, 물, 의료,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일시적인 피난 장소.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도 고려하여 설치된다. 또한, 지리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난민 캠프가 아닌 도시지역에 피난하는 사람도 있다.

### 난민문제의 해결책

- ① 본국으로의 귀환 :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의 장기화 등으로 불가능한 때도 있다.
- ② 비호국에서의 거주 : 도망쳐 온 나라에 정주하여 자립을 목표로 한다.
- ③ 제3국에서의 정주 : ①, ②가 어려운 경우의 해결책. 각국과 협력 후에 본국, 비호국 이외의 제3국에서의 정주를 목표로 한다.

### UNHCR

유엔난민기구. 난민과 피난민을 국제적으로 보호, 지원하고 난민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유엔기관. 2011년 2월 패스트리테일링과 국제적 동반관계를 체결.

난민문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UNHC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unhcr.or.kr>

\*1 일본에 거주하는 난민에 대하여 UNHCR을 포함한 신고위원회가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추천하여 제후 대학이 학부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Global Partnership Program

패스트리테일링과 UNHCR은 상호 간 인턴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 • 난민 인턴십

일본에 거주하는 난민의 자립 지원으로서 직업체험의 장을 제공. 연간 50명을 목표로 유니클로 매장에서 2주~최대 3개월간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난민 캠프 파견 프로그램

패스트리테일링의 종업원을 난민 캠프에 반년마다 2명씩 연간 4명 파견. 의류 수요의 파악과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에 기반을 둔 의류 배부 외에도 각종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NIQLO** 유니클로와 **g.u.** 지유는 UNHCR로부터 300만 벌의 옷을 이번 가을과 겨울에 세계의 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 「300만 벌 필요합니다」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2012년 6월부터 일본,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영국, 프랑스의 유니클로와



지유의 모든 매장에서 300만 벌 회수를 목표로 캠페인을 개시. 신문광고와 **f** Facebook을 통한 홍보 외에도 매장에는 회수 상자를 설치하였습니다. 많은 분의 협력을 얻은 결과, 10



월 7일 300만 벌 회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르완다, 요르단, 이라크 등 세계 각지의 난민과 피난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FROM FAST RETAILING

###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옷을, 옷의 힘을

2001년 후리스 리사이클 활동에서 시작한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은 현재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상하이 시내에서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모든 판매국에서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고객께서 전해주시신 옷들은 UNHCR(유엔난민기구)과 협동하여 세계의 난민과 피난민들에게 기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패스트리테일링과 UNHCR은 국제적 동반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본지 P12-13에서 소개한 「난민 인턴십」도 국제적 동반관계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더 넓은 영역에서의 난민과 피난민 문제에 UNHCR과 협동하여 노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피난민 지원을 계속해 가는 한편, 옷의 회수거점이 일본에서 세계로 넓어지고 옷에 대한 수요도 날마다 다양화되어 가는 가운데, 저희의 의류 지원도 수요에 대응하는 형태로 변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기관과 NGO 등과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난민과 피난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임산부와 유아 등에게도 의류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옷을 전달하기 위하여, 또한 옷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에 공감하시는 교육기관, 기업, NGO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은 저희의 힘만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옷을 전달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옷의 회수·배부를 비롯하여 함께 활동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갈 수 있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옷을 회수하거나 국제협력 NGO 조이세프와 함께 잠비아의 진료소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에 공감하고 앞으로의 전개에 관하여 흥미를 갖는 교육기관, 기업, NGO 등의 관계자가 계시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활동사례



중업원과 관리자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출장 수업



잠비아에서 임산부와 유아에게 옷 배부

의견 및 문의 접수처  
FR.G\_frgcsr@fastretailing.com